

## <단편소설>

### 다금바리

최용석 의원이 한식당 한다래에 들어간 건 오후 한 시 사십오 분이였다. 습도는 35%, 날씨는 그런대로 맑음. 오후 늦게 비가 온다는 일기 예보를 보좌관에게 전해 들은 건 식당으로 출발하기 직전의 일이다.

그는 욕실 세면대에 서서 사십대 중반의 이선 의원에게 으레 보이게 마련인 자신감과 거만함이 적절히 버무려진 표정을 지어 보인 뒤 두 명의 보좌관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오전 내내 김 회장과 한다래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할 말들을 준비해 두었지만, 왜인지 느긋하게 움직이는 게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야, 김정호. 천천히 가자. 대동여지도 만든다고 바쁘냐? 이럴 땐 조금 지체해 줘야 하는 거야. 안달 난 상대를 기다리게 해야 텐션이 만들어지지, 텐션~ 티. 이. 엔. 에스. 아이. 오엔 인마.”

뒷자리에 앉은 최용석은 운전 중인 정호의 시트 등받이를 구뚫발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권위와 농담이 적절히 배합된 훈계조의 말투였다. 용석의 말에 정호는 한 템포 늦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네네. 알겠다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조수석에 앉은 문재에게는 그 말이 흡사 네 그러시겠지요. 누구 말씀이신데 하듯 빈정거리는 말투로 들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정호의 불만스런 표정이 백미러를 통해 용석에게 비쳐질 것 같아 걱정했지만, 다행히 용석은 보좌관의 표정 따윈 신경 쓰지 않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였다.

‘정호 저 새끼, 오늘 왜 저래.’

문재는 속으로 중얼댔다. 대학 졸업 후 만 삼 년째 국회의원 보좌관 자리를 전전하면서도 의원님의 비위 따윈 맞춰 줄 줄 모르는 정호의 모습이 문재에겐 항상 걱정스러웠다.

멀리 뛰려면 바짝 웅크릴 줄도 알아야지. 할 말이 있으면 말할 위치에 오를 때까지 참아! 말을 아끼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현명한 거야. 문재는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듣던 할아버지의 훈계를 되새겼다. 뻥한 말이었지만, 삼십삼 년이란 짧고도 긴 인생을 사는 동안 문재는 그 말의 힘을 누구보다 실감했다.

차가 한다래에 도착하자 최용석 의원은 조금 전과 사뭇 다른 정중한 모습으로 김 회장에게 인사했다. 결코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지 않겠다는 용석의 결의가 15도 이상 구부리지 않은 허리와 목의 각도에서 드러났다. 그 모습을 보며 코웃

음 치는 듯한 정호의 표정을 발견한 문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졸여야 했다.

최용석 의원이 VIP룸에 들어가 있는 동안 문재와 정호는 홀에서 갈비탕을 시켰다. 아랫것이 된 것마냥 홀에 앉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의원이 나오길 기다리는 이 상황이 보좌관에게 매번 지랄 맞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문재는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개의치 않았다. 문재는 정호였다. 요즘 들어 정호는 뭔가 그렇게 불만인지 매사에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그런 정호를 문재는 감시하듯 힐끔힐끔 쳐다봤다. 언제 저놈의 성질머리가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묵묵히 갈비탕 뚝배기를 휘젓던 정호가 손가락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김 회장 저 사람 간도 커! 이 흰한 대낮에 의원님 만나 어찌려고. 이미 주가도 움직이고 언론도 냄새를 맡았는데, 그럴 거면 진작 조치할 것이지 부도 직전에 비벼서 어찌게? 다 돼지자고?”

“그만해. 안에서 듣겠다.”

“형은 그게 문제야.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몰라? 게다가 여기까지 온 의원님은 대체 무슨 꿈꿈이야?”

정호는 최용석 의원과 김 회장이 밀담을 나누고 있는 모란실 쪽을 힐끔 쳐다봤다. J건설이 부도 위기 상황이란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게다가 대주주가 주가 조작에 가담해 차익을 얻고 있다는 정보가 퍼진 것도 이미 보름 전이었다. 증권가를 떠도는 찌라시도 기정사실인 양 그 사실을 보도한 후였다. 김 회장은 사태를 무마시켜 줄 정치적 구심점이 필요하다. 검찰 쪽과 줄이 닿는 의원을 매수하거나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면 물 타기라도 해서 상황을 호전시켜야 할 판이었다. 그러데 하필 그들이 내민 미끼를 최용석이 별 생각 없이 물어 버린 것이다.

“아서라.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쭈시든 말든 뭐 상관이야? 의원님 그렇게 바보 아니다. 괜히 이선 의원인 줄 아냐?”

문재는 과민 반응을 보이는 정호를 달래며 말했다.

“웃기고 있네. 당장 뒤탈 없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

“됐어. 갈비탕이나 처먹어!”

“형은 이 판국에 갈비탕이 입에 들어가? 누구는 VIP룸에서 안창살에 꽃등심이고, 누군 홀에서 개새끼마냥 뼈다귀나 뜯고. 우리가 아랫것이야? 지금 저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

정호가 물고 있던 갈비를 탁자에 패대기치며 말했다.

“처먹기나 해!”

문재는 정호를 향해 눈을 치켜떴다. 정호의 발언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달해 있었다.

“몰라 젠장!”

문재의 눈빛에 누그러진 정호는 뚝배기에 다대기를 듬뿍 집어넣은 후 설 새 없이 손가락을 휘저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홀은 한산했다. 홀 한쪽에는 황진이와 서경덕이 노닐던 박연 폭포를 묘사한 화첩이 걸려 있고, 전통 기와를 엮은 팔작지붕 정자 옆으로 박연 폭포를 연상시키는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웬만한 중상층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고급 식당의 정경이 정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둘은 묵묵히 뚝배기에 코를 박고 갈비탕을 먹었다. 최용석을 만나려는 김 회장의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문재는 큰일을 위해선 기다려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충고를 다시금 되새기며 못 본 체하기로 마음먹었다. 따지고 보면 삼 년간 최용석의 수석보좌관을 맡으며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다. 재작년 말 최용석의 대학 선배이자 삼선 의원인 이대길이 국회의장 비자금 사건에 연류되었을 때도 최용석은 천만다행으로 무혐의로 넘어갈 수 있었다. 사실 문재의 한마디면 최용석은 골로 갈 수도 있었다. 무혐의라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을 뿐 용석은 결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었다.

“동기 좋다는 게 뭐냐. 어차피 이 바닥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유지하고 사는 거 아니겠냐. 특종감이 있으면 좀 몰아주라. 나도 요즘 국장 등살에 미치겠다.”

H일보 정치부 기자인 민수는 최용석의 행보에 수상한 냄새를 맡을 때면 매번 문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너 인마 최 의원 밑에서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 짓을 하고 있어. 잘돼서 다음 대선에서 정권 바뀌면 우리 국장님이 널 청와대 비서실에 추천해 줄 수도 있다니깐. 잘 생각해 봐.”

대학 시절부터 학생 운동에 가담해 온 민수였다. 그는 그 시절의 특기를 발휘해 진보 성향의 신문사 기자로 활약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는 매번 민수의 권유를 못 들은 걸로 했다.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의 미덕을 문재는 알고 있었다. 어쨌든 지금 정호는 최용석을 모시고 있으니깐. 주인을 물고 새 주인을 찾아간 개는 언젠가 사냥이 끝나면 숲에 삶기게 마련이다. 초나라가 망한 후 한 고조 유방이 제일 먼저 한 일을 생각해 보라. 억울한 건 한신이 아니라 역심을 숨기지 못한 한신의 어리석음이다. 정호는 매번 고사에서 배운 진리를 마음에

새겨 왔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달리 문재의 태도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앞뒤 재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 버리는 문재의 불같은 성격에 눈치 없이 최용석의 비리를 언론에 터트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문재를 엄습했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지 않은가. 한 번 눈감아 주면서 그 대가로 내가 불리할 때 사용할 카드가 한 장 생기는 셈이다. 결국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정호는 그런 융통성이 없다. 그럴 때면 후배인 정호를 최용석 의원의 보좌관으로 추천한 것이 실수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했다.

삼십 분이 지났다. 용석이 들어간 모란실에는 몸에 착 달라붙는 유니폼을 차려 입은 여종업원이 수시로 들락거렸다. 정호와 문재는 하염없이 모란실을 쳐다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그때 정호의 휴대폰 벨이 울렸다. 액정에 찍힌 이름은 이대길 의원이었다. 문재가 눈짓하자 정호가 눈치 있게 스피커 모드로 전환 후 녹음 버튼을 눌렀다.

“용석이 옆에 있냐?”

이대길 의원의 목소리가 문재에게까지 전해졌다.

“아, 이 의원님, 저희 의원님은 지금 손님과 식사 중이십니다.”

“그래? 누구? 거기 어딘데?”

“저기 누구냐 하면.”

정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얼버무렸다. 뭔가를 고민하는 눈치였다. 스피커폰으로 모든 내용을 듣고 있던 문재의 이마에 진땀이 흘렀다. 최용석이 김 회장을 만난다는 걸 말해 버리는 순간 모든 게 엉킨 이어폰 줄처럼 꼬일 것이다. J건설은 두바이 호텔 공사 수주 문제와 더불어 주가 조작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몇 번이나 이대길 의원에게 청탁해 왔다. 지난번 비자금 문제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이대길이 거절하자 이번엔 최용석을 만난 것이다. 이 사실이 이대길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는 최용석을 압박할 카드를 손에 쥐는 셈이다. 눈치 빠른 삼선 의원에게 이 정도 측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구나 한다래는 J건설에서 운영하는 접대용 고급 식당이다. 한다래에 있다는 말만으로도 그는 모든 걸 눈치챈 것이다.

전화를 받는 정호가 문재를 힐끔 쳐다봤다. 문재는 두 손으로 가슴에 엑스를 그리며 눈짓했다.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바닥에서 영원한 아군은 없다. 이대길이 최용석의 약점을 아는 순간 문재가 그간 쌓아 놓은 모든 공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저, 그게.”

“뭔데? 어서 말해.”

이대길의 재촉했다.

“아니. 저.”

정호는 머릿속이 혼란한 듯 문재를 바라볼 뿐이다.

“뭐야? 왜 그래. 혹시 용석이 그 새끼?”

그때 문재가 정호의 수화기를 뺏어 들었다.

“아, 의원님. 사실은 저희 의원님이 훗카이도에 계십니다. 이거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도 난처하네요.”

훗카이도는 용석이 자주 찾는 림살롱이다. 그곳 에이스인 월령에게 최용석이 한창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대길도 알고 있었다.

“아 그래? 자식들 진작 말하지. 알았어. 용석이한테 내가 전화했다고 말해 줘.”

“네, 그럼요.”

“그리고 용석이한테 전해. 쓸데없는 데 너무 힘쓰지 말라고.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는 말이야. 뺄스를 잘 벗어야 돼. 아무 데서나 뺄스 함부로 벗으면 인생 골로 갈 수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이였다. 하지만 이대길은 뭔가를 눈치 채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았다. 이대길은 혼잣말로 몇 마디 더 떠들더니 전화를 끊었다. 통화 종료음이 들리는 순간 문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정호를 쏘아봤다. 왜 그리 눈치가 없냐고 한소리 해 주고 싶었다.

“너 이 새끼…….”

욕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찰나 모란실의 미닫이문이 열리며 최용석이 고개를 내밀었다.

“야, 거기 문재! 이리 와 봐.”

최용석은 보좌관 중 아무나가 아니라 정확히 문재를 불렀다. 문재는 급히 인상을 풀고 VIP룸으로 뛰어갔다.

“이거 좀 가져가. 회장님이 이런 걸 다 주시네.”

용석이 넘겨준 건 뭔가 묵직한 것이 들어 있는 스티로폼 박스였다. 내용물은 알 수 없지만, 박스에 든 것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트렁크에 넣어 뒤.”

용석의 말에 알겠다고 하며 박스를 들고 나가려는 찰나였다.

“야, 이리 잠깐.”

용석은 문재를 가까이 불러 귓가에 바짝 입을 대고 말했다.

“조심해서 다뤄야 해. 알지?”

“아, 네네!”

문재는 용석이 건넨 박스를 두 손으로 들고 나왔다. 애써 정호의 눈을 피해 조금 전 갈비탕을 먹던 테이블을 우회해 홀을 빠져나갔다. 정호는 그런 문재를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멧쩍게 눈이 마주치자 정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간사한 새끼. 넌 형이라는 놈이 속도 없냐?’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문재는 박스를 차 트렁크에 넣었다. 박스는 묵직했지만 내용물을 정확히 짐작하기란 불가능했다. 어차피 김 회장의 진짜 의도는 내용물이 아니라, 내용물 사이에 있을 게 분명했다. 홀에 돌아왔을 때 문재는 정호를 쳐다보기가 불편했다. 문득 이대길 의원과 통화하던 정호의 태도가 생각났다.

“야, 너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의원님이 여기 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 뻔 했냐?”

정호를 다그쳐야 할 문재의 목소리가 간신히 목구멍을 빠져나왔다. 문재의 마지막 발언은 허물어지고 있었다.

“나 이제 이 짓거리 그만할 거야! 하려면 형이나 실컷 해!”

정호에게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무슨 소리야? 너 정치 안 할 거야?”

“형은 저런 새끼들 똥꼬나 빨고 있는 게 좋아? 그까짓 정치가 뭐기에.”

정호가 문재에게 되물었다. 문재는 할 말이 없었다. 13년 전 정치외교학과를 입학할 때부터 남들처럼 평범한 취업 따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은 터무니없었지만 국회의원이거나, 하다못해 시의원이라도 돼서 세상을 바꿔 보겠다는 막연한 꿈도 있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온 말이 정호를 세뇌시켜 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른들은 말해 주지 않았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고 견디며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 불의 앞에서도 통용되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한 인내의 가치인지. 이런 일이 있을 때면 문재를 괴롭힌 건 막연한 공포였다. 몸에 맞지 않는 옷마저 자신을 저버린다면 문재는 알몸일 수밖에 없다. 올해 나이 서른셋. 정치를 그만두고 진로를 바꾼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다.

정호의 말에 문재는 치미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

“난 뭐 좋아서 이 짓 하나? 미친 새끼!”

“그럼 왜 하는데.”

“나도 의원 되려고 그런다. 인마.”

문재의 말에 정호는 경멸의 표정을 지었다. 정호는 매년 최용석에게 짝소리 못하고 굽실대는 문재를 보면 짜증이 났다.

‘전라도 놈들 죄다 정치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대의 따윈 생각하지 못하는 쌍것들이지.’

지역감정이 배어 있는 어른들의 편견을 들을 때마다 정호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 좁은 나라가 왜 동서로 분리되어 혈뜯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로 부딪칠 때면 정호는 문재가 어쩔 수 없는 전라디안이라 믿었다. 정호는 문재의 성향을 문재 삼을 때마다 어른들의 편견을 답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문재는 초등학교 때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 왔다. 따지고 보면 온전히 전라도 사람도 아니었지만, 문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지역적 편견과 버무려 문재를 어쩔 수 없는 전라디안으로 치부하곤 했다. 온갖 것들을 동원해 상대를 폄하해 버리는 인간의 본능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정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것이 문재를 이해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이었다.

따지고 보면 그건 문재도 마찬가지였다. 문재는 정호의 전형적인 경상도식 끈대 기질이 싫었다. 근대사를 피로 물들인 독재자들 모두 경상도 인간들이 아닌가? 좀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호는 생각이 굳어 버린 노인네처럼 자기 안에 답습해 온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만 쟤다. 정호는 사사건건 혼자 정의로운 척 온갖 비판을 일삼았다. 하지만 힘없는 정의는 무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 거면 뭐 하러 보좌관 제의를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었다. 보좌관의 기본은 의원을 모시는 것이다. 의원의 행동을 판단하는 역할이 아니다. 한때 최용석은 둘의 우정을 보며 동서화합이라 별명을 붙여 주었다. 누가 동서고 누가 화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동서화합이었다.

정치학을 공부하던 시절이었다. 2학년 2학기 정치외교론의 실체 첫 수업. 정호는 혼자 빈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들었다. 몇 번 얼굴을 마주치거나 인사 정도 해 본 선배나 후배 혹은 타과 청강생이 보이긴 했지만, 한창 어울리던 친구들은 모두 입대하거나 유학을 가 버렸다.

정치학을 가르치던 노교수는 칠판에 베르길리우스의 명구를 남기고 강의실을 떠났다.

‘악은 은폐에 의해서 자라난다.’

정호는 말없이 노트에 노교수가 적어 준 명구를 받아 쓰다 말고 볼펜으로 덧칠해 버렸다. 베르길리우스의 아포리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아이네이스를 써 위대한 시인으로 남았지만, 그가 칭송한 팍스 로마나는 이민족을 억압해 쟁취한 폭력에 의한 평화에 지나지 않았다.

오후 늦게 시작한 강의가 끝난 건 창밖으로 막 해가 지기 시작한 뒤였었다. 해가 만든 책결상의 긴 그림자가 강의실 구석구석 드리워지고 있었다. 뒤를 돌아봤을 때 누군가 여전히 강의실에 남아 칠판에 적힌 명구들을 받아 적고 있었다. 시선을 느낀 남자는 고개를 돌려 손바닥으로 턱을 꺾 채 해가 저무는 창밖을 바라봤다. 얼마 전 복학한 두 살 위의 선배인 문재였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

문재가 정호의 눈을 쳐다보며 물었다.

“뭘 하든 이 짓거린 싫어. 정치를 관두고 막노동을 하더라도 이 짓은 안 할 거야!”

정호의 눈빛은 진심인 듯했다. 그때 최용석이 김 회장과 웃으며 립에서 나왔다.

문재는 별떡 일어나 목례를 했다. 정호도 마지못해 일어나 둘에게 인사했다. 김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문재와 정호에게 눈 마주치지 않고 급히 홀을 빠져나갔다.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기사가 김 회장을 보자 급히 나와 뒷문을 열어 주었다. 올 때와는 달리 하늘은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덩달아 최용석의 허리 역시 사라져 가는 차를 향해 잔뜩 구부러져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은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들은 말없이 자신의 고개가 향한 곳만 응시할 뿐이었다.

“저게 뭘니까?”

운전을 하던 정호가 정적을 깨고 최용석에게 물었다. 백미러로 정호의 정색한 얼굴이 드러났다.

“저거? 뭐?”

갑작스러운 행동에 문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미친 새끼가 무슨 말을 하려고.

“트렁크에 넣은 스티로폼 상자요.”

정호가 최용석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니가 알아서 뭐하게?”

최용석이 대꾸했다.



“뭔지나 말해요!”

정호의 언성이 높아졌다. 이제 모든 게 끝이다. 문재는 정호와의 인연이 여기까지라는 걸 직감했다.

“왜 어찌려고? 너도 먹고 싶냐?”

“아 말해 보라니까요.”

“뭐야 이 새끼. 갑자기 정색하고! 다금바리다 왜? 제주도 직송 다금바리. 김 회장 고향이 제주도라서 가져왔단다. 예사로 못 사 먹을 만큼 비싼 생선이야 마!”

용석의 뜻밖의 말에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문재의 등줄기로 흘러내린 땀은 어느새 식어 셔츠를 적셨다.

“됐어. 인마.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다금바린지 닭한마린지 회나 떠 먹자고.”

문재의 예상과 달리 최용석은 툭툭하게 웃으며 시트 깊이 몸을 묻었다. 문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최용석의 표정에 숨겨진 미묘한 표정의 의미를 읽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읽어 낼 수 없었다. 삼선 의원이든 사선 의원이든 보좌관에게 뒤통수를 노출한 의원은 뒤가 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최용석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아, 그 자식. 그렇게 뚱은 표정을 짓고 싶으면 가서 트렁크 열어 보든가?”

최용석이 소리쳤다.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최용석의 표정이 문재와 정호의 숨통을 죄여 왔다. 정호는 차마 트렁크를 열어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공포가 문재의 등줄기를 스쳤다. 정확하진 않지만, 문재와 정호는 서로 다른 형태의 공포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찌면 최용석은 이미 그 걸 예측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찌면 동서화합을 언급할 때부터 그는 문재와 정호를 의도적인 갈등 상태로 방치해 둔 건지도 모른다. 문재와 정호의 갈등은 결국 최용석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길 의원에게 연락 온 거 없어? 그 사람 축이라면 지금쯤 전화 오고도 남았을 텐데. 아무튼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해. 시간 되면 다른 의원들도 부르고. 간만에 다 같이 회포를 풀어 보자고. 하하.”

최용석은 오랫동안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자동차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갔다. 문재는 백미러와 정호의 옆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름 한복판의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던 도로엔 한두 방울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